

2017 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하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문화예술교육

에코 아틀리에

“ART&PLAY 예술로 놀자!”

목차

박물관 속, 어린이와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발칙한 창의상상 세상을 응원하며 전지영(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06
에코 아틀리에에는 이런 곳이에요	08
에코 아틀리에 교육 프로그램	10
에코 아틀리에에서 예술로 놀았어요	15
● 요구르트 병과 검정 비닐 마법사 이윤기(미술 작가)	16
● 엄마와 함께 슈퍼영웅 그림자놀이 강효정(연극배우)	24
● 안녕? 나는 흰우유야 이기봉(연극배우)	32
ART&PLAY DAY 예술로 놀자!	40
● 교육 프로그램 소개	40
● 교육 프로그램 현장	42
● 참가후기	44

박물관 속, 어린이와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발칙한 창의상상 세상을 응원하며

| 전지영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Art&Play day, 예술로 놀자!>가 그것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경험하면서 잠재된 창의성을 어렵지 않게 표출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가들과 기관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기발하고 재미난 창의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통통 튀는 개성과 기발한 상상력을 가진 예술가들을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이 있지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예술가들이 지역 기관으로 들어와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문화의 창조성이 사회 속에 골고루 뿌려지고 이를 통해 예술인과 예술의 가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2016년부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열정 넘치는 퍼실리테이터, 예술가들의 섬김과 협력을 통해 멋진 문화예술 경험치를 지역 어린이들과 나누는 행운을 누리고 있지요.

특히, 올해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3층에 위치한 에코 아틀리에에서 예술가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에코 아틀리에에는 화성여성기업회의 후원으로 물품을 기증받아 운영하는 재활용 창작 공간입니다. 기업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각종 포장재, 부속물들이 예술가들의 창의상상력을 통해 예술 표현 도구로 변모하는 마술 공장과 같은 곳이지요. 2011년 개관 시에도 작가와 함께 이 공간을 만들었고 이후 가족 관람객 대상의 재활용 업사이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속 창의공작소인 에코 아틀리에에서 올해는 총 3명의 작가와 퍼실리테이터 선생님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어요!>라는 주제로 재치 만점, 열정 만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는데요.

먼저, 강효정 연극배우는 슈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혹은 집에서 버려지는 여러 비닐을 가지고 슈퍼 영웅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엄마와 함께 슈퍼 영웅 그림자놀이>를 기획해 주셨고, 이기봉 연극배우는 우유팩으로 단란한 가족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 함께 사는 즐거움을 이야기한 <안녕, 난 흰 우유야>를 통해 우유팩의 무한 변신을 보여주셨으며, 이윤기 미술작가는 요구르트병과 검정 비닐이 날개 달린 물고기로 변신해서 마음껏 넓은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요구르트 병과 검정비닐 마법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것들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재활용 혹은 새활용의 가치를 인식하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향유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세 분의 예술가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정이나 공동체 모임에서도 쉽게 접해볼 수 있도록 관련한 내용을 재미있게 각색하여 '가이드북'을 만들어주셨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신나고 기발한 생활예술작품과 이야기를 굳이 박물관에 오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예술로 놀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직접 만드는 번거로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예술가들... 얼마나 많은 고민과 수고,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는지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가볍지 않게 작가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탄하며 지켜본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을 접하는 어린이들의 인성과 감성 속에 분명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감히 확신하지요.

예술인 파견지원을 통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에코 아틀리에의 든든한 후원인이신 화성여성인기업회 그리고 무엇보다 올 한해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강효정·이기봉·이윤기 예술가님, 신연호 퍼실리테이터 선생님과 박물관의 황서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선한 뜻이 모여 이곳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찾는 어린이와 부모님께 분명 좋은 문화예술 경험과 추억이 전달될 것을 기대합니다.

박물관 속, 어린이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발칙한 창의상상 세상을 언제나 응원하며,

에코 아틀리에는 이런 곳이에요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를 비롯한 경기도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재활용 재료(비닐, 스펀지, 에어캡, 플라스틱 등)를 지원받아 멋진 상상력으로 조형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에코 아틀리에에서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기업 | 일신테크(박명춘): 플라스틱, 효성에어캡(류현숙): 비닐, 부성산업(윤성순): 스펀지, 남양고진공(홍재남): 플라스틱, 나눔핀앤씨(이영민): 골판지, 정인디아이와이(문서현): 미술재료, 보니(정민서): 플라스틱, 윈텍(유미양): 스펀지

*에코아틀리에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재료를 후원해 주세요. 쓰고 남은 재료, 완제품이 되지 못한 제품,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물건 등을 모아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리·업사이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업의 후원을 바랍니다.

에코 아틀리에 교육 프로그램

에코 아틀리에에서는 유아단체와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업·리사이클 아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가족 대상 프로그램

● 주제

-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작품을 제작해요.
- 여러 가지 재활용 재료를 이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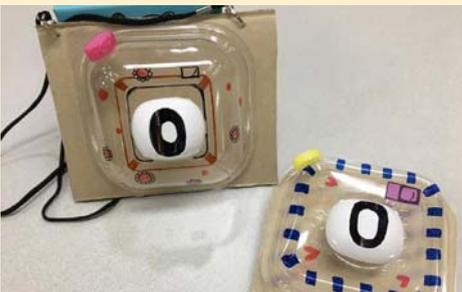
2. 2017년 유아단체 프로그램

● '복'을 담아 보아요!



- 누리과정 생활 주제 : 생활도구
-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복조리 만들기
- 책받침 재료(플라스틱), 백업, 하드바, 매직, 네임펜 등

● 친구야 같이 사진 찍자



- 누리과정 생활 주제 : 유치원/ 어린이집과 친구
- 재활용 재료로 카메라를 만들어 친구 얼굴 그리기
- 플라스틱 용기, 박스, 백업, 매직 네임펜 등

● 행복한 우리 집



- 누리과정 생활 주제 : 나와 가족
- 재활용 재료를 행복한 우리 집 꾸미기
- 플라베니아, 종이 백업, 스펀지, 매직, 네임펜, 색연필 등

●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 누리과정 생활 주제 : 여름
-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 고깔종이컵, 스티로폼공, 빨대, 백업, 네임펜, 색연필 등

● 울긋불긋 나뭇잎 왕관 만들기



- 누리과정 생활 주제 : 가을과 자연
-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나뭇잎 왕관 만들기
- 일회용 종이접시, 백업, 네임펜, 매직, 한지 등

● 빙글빙글 팽이 만들기



- 누리과정 생활 주제 : 우리나라의 놀이
-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팽이 만들기
- 일회용 돔뚜껑, 빨대, 골판지, 매직 등

● 어린이 스마트폰 만들기



- 누리과정 생활 주제 : 기계와 생활
-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어린이 스마트폰 만들기
- 소스통 뚜껑, 골판지, 스티커, 백업, 네임펜 등

● 추운 겨울 눈사람 만들기



- 누리과정 생활 주제 : 겨울의 모습
-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눈사람 만들기
- 스티로폼공, 스펀지, 수수깡, 백업, 네임펜, 폼폼이 등

3.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 주제 : 스펀지의 쓰임과 특징을 이해하고 나만의 창작품 만들기



- 스펀지의 특징과 쓰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아요.
- 재활용 재료 중 스펀지를 활용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에코 아틀리에에서 예술로 놀았어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우리는 예술가들이에요.

우리는 어린이 여러분처럼 늘 엉뚱하고 재미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에코아틀리에에서

어린이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올 여름을 보냈어요.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그렇게 만든 결과물을 이 책에 담았어요.

아마 이 책을 보고 나면 여러분도,

“아햏, 예술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로군.”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겠는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예술은 여러분의 엉뚱한 상상력과 재치 있는 생각으로 만드는
신나는 결과물이랍니다.

조금 서투러도 괜찮아요. 빼어나게 예쁘지 않아도 괜찮고요.

여러분은 즐겁게 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놀았는걸요.

요구르트병과 검정 비닐 마법사

| 이윤기(미술 작가)





나는 요구르트병입니다.

내 몸 안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답니다.
하지만 나를 쪼르륵 빨아 먹고 나면 쓰레기통에 흑~ 하고 던져 버려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괴롭답니다. 쓰레기통은 너무 싫거든요.

오늘도 검정 비닐 속에서 엉엉 눈물을 흘리며 소원을 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정 비닐이 크게 한번 꿈틀거리더니 마법사로 변신했어요.
검정 비닐 마법사는 거친 숨소리를 흑~흑~거리며 요구르트병에게 말을 했어요.
“요구르트병, 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요구르트병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저는 하늘을 나는 날개가 달린 물고기가 되고 싶어요.”
검정 비닐 마법사가 바람을 일으키며 펄럭펄럭 요동쳤어요.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검정 비닐 마법사가 주문을 걸자 요구르트병 등에 예쁜 날개가 솟아났어요.

착한 요구르트병은 날개 달린 물고기가 되어 시냇가로~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버려진 친구들을 보았어요.
길가에서 울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또 다시 마음이 아팠어요.
친구들도 멋진 날개를 달고 싶어 했거든요.

검정 비닐 마법사는 요구르트병에게 말했어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에코 아틀리에’에 가면 예술가라는 마법사들이 있단다.
그곳에 가면 친구들에게도 멋진 날개를 달아 줄 거야.”
요구르트병은 친구들도 날개를 달 수 있다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 후,
요구르트병은 멋진 날개를 단 친구 요구르트병들과 넓고 넓은 세상 속으로 날아갔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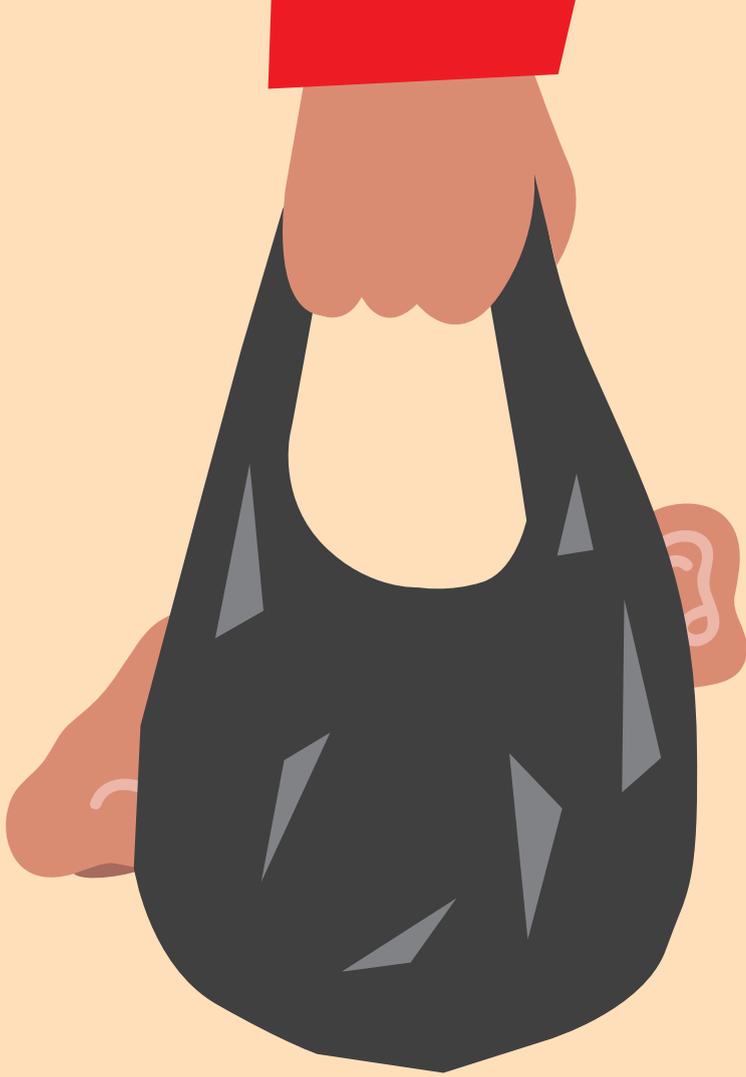
● 놀아볼까?



날개달린 요구르트병

요구르트병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지 상상해 보세요.

1. 요구르트병에게 넓은 세상으로 멀리멀리 날아갈 수 있는 큰 날개를 달아보거나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날개를 꾸며보면 어떨까요?
2. 날개는 작지만 튼튼한 다리를 가져서 달리기가 더 빠른 요구르트병도 좋을 것 같아요.
3. 또는 지혜로운 큰 눈을 붙여서 숨어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만의 검정 비닐 마법사

여러분이 검정 비닐마법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1. 멀리 멀리 잘 볼 수 있는 큰 눈을 가지거나 귀가 커서 작은 소리도 잘 듣는 검정 비닐 마법사는 어떨까요?
2. 자신만의 주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브라카타브라~ , 수리수리마수리~ 등등)
3. 마법을 부리기 위해 검은 망토가 반짝반짝 빛나는 마법사는 어떨까요?
4. 가끔 피노키오처럼 거짓말을 잘 하는 코가 큰 마법사도 있대요.

● 만들어볼까? <날개 달린 요구르트병>

★ 제작재료



★ 눈알 붙이기



★ 날개 붙이기



★ 빨대(기둥) 붙이기



★ 오브제 장식하기



★ 제작 완성



● 만들어볼까? <검정 비닐마법사>

★ 제작재료



★ 마법사의 머리와 몸을 구분하여 만들기



★ 마법사의 얼굴에 동그란 눈 붙이기



★ 마법사 망토 꾸미기와
다리 만들기



★ 마법사 요술봉 만들기
붙이기



★ 제작 완성



슈퍼영웅 이야기 만들기

| 강효정(연극배우)





오늘은 금요일!

저녁을 먹은 후 엄마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매일 회사에 출근하느라 바쁜 엄마도 금요일 저녁 시간만은 여유로워요.

세상 모든 것이 있는 마트!

나는 슈퍼영웅 변신 장난감이 갖고 싶었지요. 엄마는 새 장난감을 사면 집에 있는 장난감은 버려야 한다며 사 주지 않아요. 장난감이 너무 많대요. 내 생각에는 아주 적은데...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 엄마에게 화가 나요. 계속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니까 엄마는 이제 대답도 안 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아요.

집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네요. 내 눈물 같아요. 엄마가 마트에 다시 들어가 일회용 비닐 우비를 사왔어요. 비닐 우비도 집에 많은데... 장난감은 많다고 안 사주면서 비닐 우비는 많은데 자꾸 사요. 비닐 우비를 입고 티벅티벅 집으로 걸어가요. 오늘따라 발로 잘 돌멩이도 없네요.

집으로 돌아오자 밤이 되었어요. 컴컴한 집안으로 들어오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휴대폰의 플래시를 켜자, 왓! 비닐우비를 쓴 내 모습이 벽에 거대한 괴물 그림자로 보이네요.

엄마 : 으악! 살려주세요, 우주괴물님.

엄마가 내 그림자에 놀라며 쓰러지니 웃음이 터졌어요. 푸하하!

나 : 우주괴물이라니! 난 우주괴물들을 고향별로 보내주는 슈퍼영웅X다. 너야말로 우주괴물 같구나.

우리는 장을 봐 온 종이 상자, 비닐 우비를 가지고 그림자놀이를 시작했어요. 비닐 우비는 슈퍼영웅의 망토가 되고, 종이 상자를 오려서 우주물고기를 만들었지요. 집에 있던 셀로판지를 오려 붙여 멋진 선글라스까지 만들자 내 그림자는 진짜로 멋진 슈퍼영웅이에요! 우리 집 벽에 그림자들의 우주가 펼쳐지네요.

엄마 : 난 고향별 스피카로 가고 싶은 우주물고기예요. 고향별로 돌아가면 마법이 풀릴 거예요. 도와줘요. 슈퍼영웅X!

나 : 걱정 말아, 우주물고기! 어떤 괴물도 널 공격하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줄게. 나를 따라 와. 스피카별로 가자!

슈퍼영웅이 고향별을 찾아가는 우주물고기를 도와주는 이야기는 오늘 밤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눈물이 나오려던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엄마와 함께 놀면서 슈퍼영웅이 되어보니 정말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자려고 누우니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나요. 다음엔 아빠와 엄마가 모두 우주괴물이 되고 난 괴물을 무찌르는 우주경찰이 되는...하아플! 그런 꿈, 아니 그런 놀이를 할 거예요. 하아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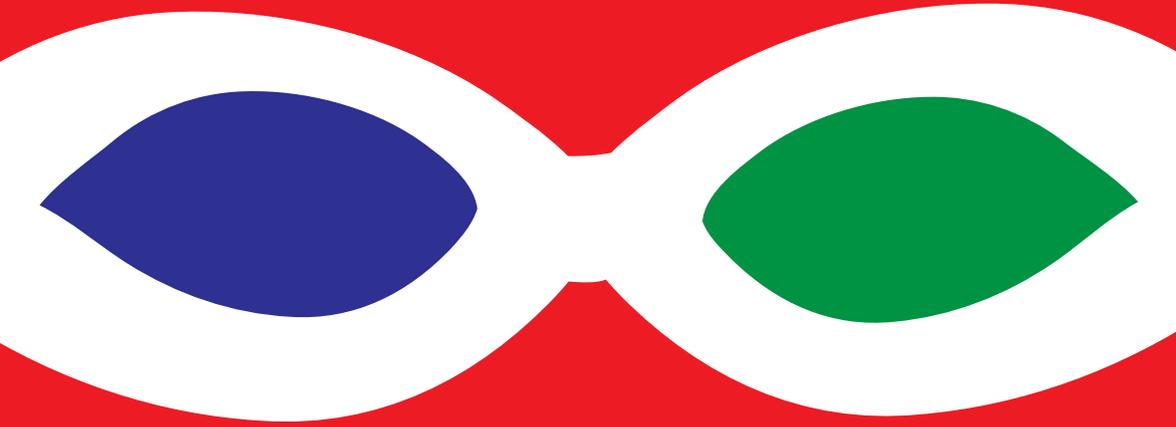
함께 하는 그림자놀이

1.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빛은 똑바로 나아가는 친구예요.
내 그림자는 내가 빛을 가로막아 생기지요. 그래서 나와 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생겨요.

2. 빛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과 길이는 달라져요.

3. 빨주노초파남보. 어! 그림자는 색이 없네요!
빛을 투과하는 셀로판지는 색이 있는 그림자를 만들 수 있어요.
비닐이나 그물망들은 재미난 그림자 무늬를 만들지요.





슈퍼영웅과 우주물고기 이야기 만들기

1. 우주물고기를 도와주는 멋진 슈퍼영웅!

여러분의 슈퍼영웅은 누구인가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짜잔 나타나는 나만의 슈퍼영웅을 이야기해 보아요.

2. 고향별로 돌아가고 싶은 우주물고기!

여러분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요?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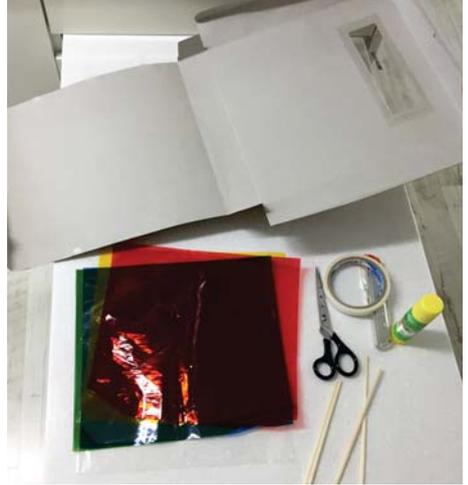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나요?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 만들어볼까? <슈퍼영웅 왕관, 우주물고기, 슈퍼영웅 선글라스>

★ 재료 준비

- 종이 쇼핑백 혹은 과자 상자를 펼쳐 만든 종이
- 가위, 칼, 투명 테이프, 나무젓가락, 셀로판지
- 비닐 우비 혹은 얇은 비닐봉지 (채소용 큰 비닐)



★ 슈퍼영웅 왕관

- ① 비닐을 직사각형으로 잘라 부채꼴로 접어 모양을 만들어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줘요.
- ② 종이를 왕관 모양으로 잘라 머리 크기에 맞게 고정해줘요.
- ③ 부채꼴 장식을 원하는 곳에 붙여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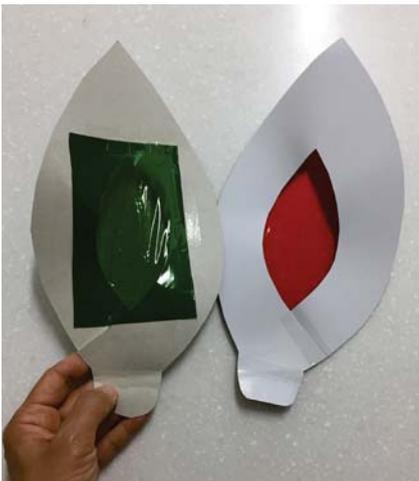
★ 우주물고기

- ① 종이를 물고기 모양으로 잘라요. 꼬리지느러미나 비늘을 표현하면 더 멋진 물고기가 되지요.
- ② 아가미 혹은 눈 부분에 좋아하는 색깔의 셀로판지를 붙여요.
- ③ 나무젓가락을 붙여 고정해줘요.



★ 슈퍼영웅 선글라스

- ① 종이를 안경 모양으로 잘라요.
- ② 안쪽을 오려내고 좋아하는 색깔의 셀로판지를 붙여요.
- ③ 나무젓가락 사이에 끼워 고정해줘요.



● 만들어볼까? <슈퍼영웅 왕관, 우주물고기, 슈퍼영웅 선글라스>

★ 완성품

- 슈퍼영웅 왕관



- 우주물고기



- 슈퍼영웅 선글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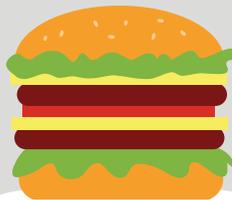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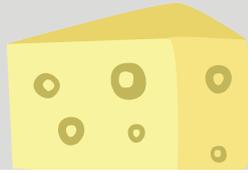


- 다 같이



안녕? 나는 흰 우유야

| 이기봉(연극배우)





안녕! 난 흰 우유라고 해. 내가 있는 이곳은 아주 커다란 마트야. 내 옆에는 가족이 아주 많단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을 소개할까?

아빠 이름은 리터야. 일리터. 아빠는 무척 바빠. 왜냐고? 음, 빵 만드는 것도 도와야 하고, 케이크 만드는 것도 도와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과자 만드는 것,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만드는 것 돕기 등 할 일이 무척 많아서.

엄마 이름은 플레인. 엄마는 여자들하고 친해. 다이어트를 도와주거든.

할아버지는 프리마야. 할아버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셔.

할머니는 크림이야. 스파게티 만드는 것 돕기를 좋아하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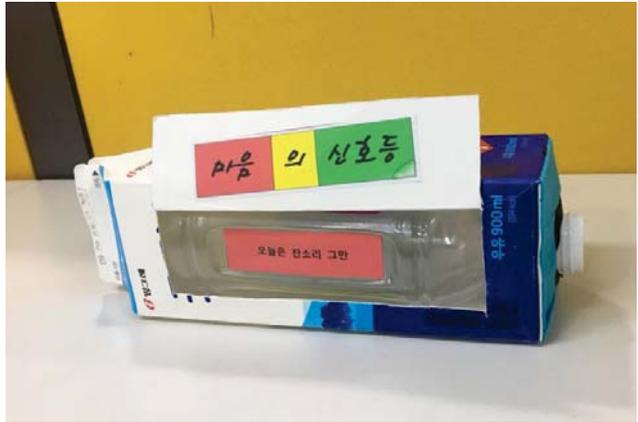
삼촌은 치즈. 예전에는 햄 누나하고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햄은 화장을 너무 많이 해서 부담스러웠대. 요즘은 버거 누나와 사랑에 빠졌어. 버거 누나와 같이 있으면 막 녹아내린다.

모두들 재미있지? 아, 깜빡했다. 사촌들도 있어. 날씬한 플레 누나가 있고 쌍둥이인 거트 형과 구르트 형. 이 형들이 부탁이 있대. 먹고 나면 꼭 분리해서 버려주고 이는 꼭 닦아달래. 부탁해. 재미있는 우리 가족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지? 우리는 넓은 초원에 있는 목장에서 왔어. 그곳에서 우리의 수호신인 젓소 할머니가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린이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게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 수호신 할머니는 어린이 친구들이 잘 알고 있으니 친구들이 도와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

모습은 조금씩 다른 우리 가족의 꿈은 모두 같아. 이 마트에서 나가서 어린이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럼 곧 만나. 아, 졸리다. 한잠 자야지.

● 만들어서 놀아볼까? <마음의 신호등>

안녕! 난 마음의 신호등이야.
마음이 답답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나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
자, 그럼 한 번 만들어볼까?



★ 먼저 우유를 많이 마신 다음
빈 우유팩과 빈 생수병을
준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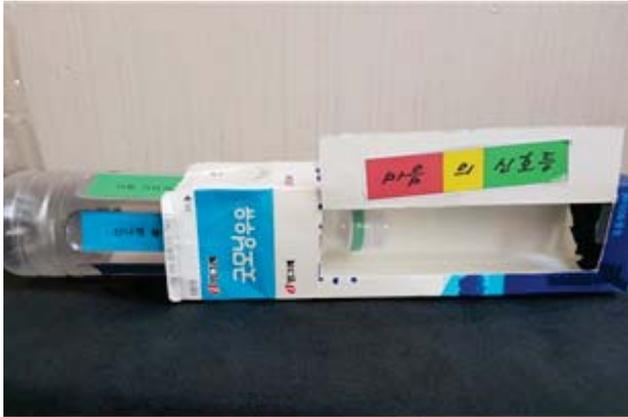
★ 우유팩의 밑면은 둥그렇게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구멍 둘레는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 ★ 색종이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오려 붙여 주세요.



- ★ 생수병 입구가 우유팩 밑면의 구멍으로 나올 수 있게 밀어 넣어 주세요.



- ★ 드디어 완성!
자 이제 신호등에 쓰인 글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 보아요.



● 만들어서 놀아볼까? <두말이>

안녕! 난 두말이야. 양 두말.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양 두말. 친구들은 한 입으로 두 말 한 적 없어?

난 가끔 입에서 마음에 없는 말이 튀어 나갈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해. 그래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어. 그건 말하기 전에 입을 잘 모으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앞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단다.



내 모습은 원래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될 때가 많아.
자 그럼 친구들도 한 번 만들어 볼까?



- ★ 먼저 우유팩을 씻어서 잘 말린 다음 한 쪽 면을 오려내세요. 팩 두 개의 사이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래야 손을 넣을 수 있거든요.



- ★ 구멍을 뚫은 반대편에는 흰 종이를 붙여주세요.



- ★ 눈알을 붙이고 코와 입도 색종이로 붙여주세요. 코와 입 부분을 잘라주면 완성이에요.



● 만들어서 놀아볼까? <팩돌이>

안녕!

난 팩돌이야. 던지면 팩 돌아가서 팩돌이.

친구들 집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면 어떨까?

팩돌이를 던져서 단어나 문장이 나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야.

예를 들어 쓰다듬기가 나오면 아침저녁 쓰다듬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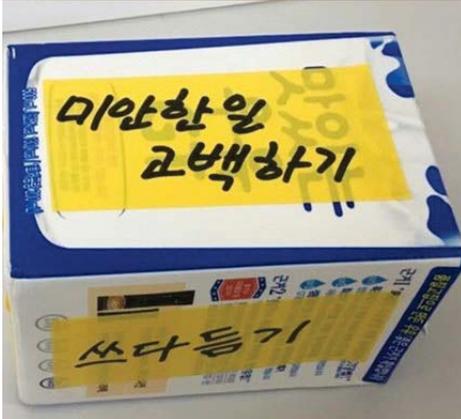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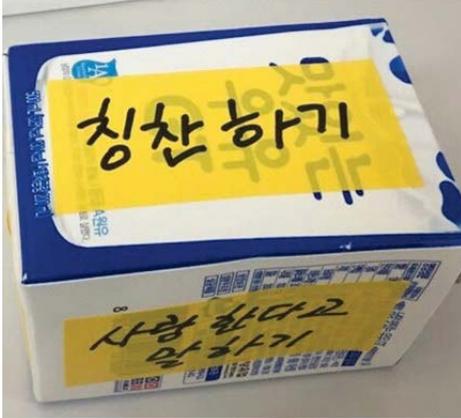
칭찬하기가 나오면 칭찬하여 주기.

다양한 약속을 친구들이 직접 정해보면 어떨까?

아! 용돈주기처럼 엄마 아빠에게 부탁하는 말도 써 봐.

친구들도 직접 만들어서 해 보기 바랄게.





ART&PLAY DAY

예술로 놀자!

교육 프로그램 소개

수업명	2017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ART&PLAY DAY <예술로 놀자!>				
수업 일시	11월 4일, 11일, 18일(토) 2회(10시~11시30분, 1시~2시30분) 각 90분씩				
대상 연령	초등 1학년~3학년 13명				
교사	강효정, 이기봉, 이윤기 (2017년 예술인 파견사업 참여 예술가)				
수업 주제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어요!				
수업 목표	버려지는 것들로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예술을 체험하고, 만든 것으로 연극 놀이를 하면서 세상에 버려도 괜찮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안다.				
수업 재료	검은 비닐, 요구르트병, 긴 빨대, 전기 풀, 여러 가지 꾸미기 재료				
수업 내용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준비</td><td>- 몸 놀이를 통해 수업에 참가하는 어린이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앞으로의 활동에 흥미를 갖게 한다. - 연극배우 교사의 지도에 따라 기 보내기, 박수치기, 고리풀기, 얼음땀과 같은 즐거운 놀이를 하며 처음 만난 친구들과 협동심과 배려를 익혀본다.</td></tr></tbody></table>	구분	내용	준비	- 몸 놀이를 통해 수업에 참가하는 어린이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앞으로의 활동에 흥미를 갖게 한다. - 연극배우 교사의 지도에 따라 기 보내기, 박수치기, 고리풀기, 얼음땀과 같은 즐거운 놀이를 하며 처음 만난 친구들과 협동심과 배려를 익혀본다.
구분	내용				
준비	- 몸 놀이를 통해 수업에 참가하는 어린이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앞으로의 활동에 흥미를 갖게 한다. - 연극배우 교사의 지도에 따라 기 보내기, 박수치기, 고리풀기, 얼음땀과 같은 즐거운 놀이를 하며 처음 만난 친구들과 협동심과 배려를 익혀본다.				

수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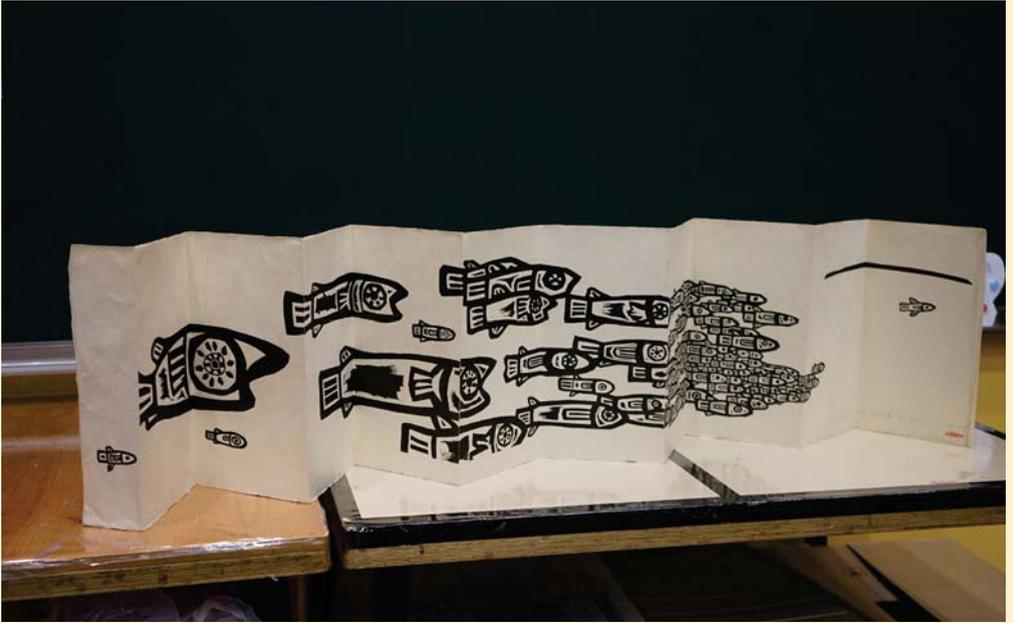
구분	내용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배우 교사가 1인 상황극을 전개하여 어린이에게 연극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 제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 미술 교사와 함께 버려지는 요구르트 병으로 날개 달린 물고기를 만들거나 검은 비닐봉지로 마법사를 만들어 본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가 만든 작품에 스스로 이름을 붙이고 마법의 주문을 만들어보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낸다. - 직접 만든 작품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하거나, 예술가 교사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발표력을 높인다. - 몸놀이를 통해 오늘 만난 친구들과 즐겁게 인사하며 마무리한다.

ART&PLAY DAY

예술로 놀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





참가 후기

1인 연극배우 아침-강효정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을 하는 '아침'입니다. 연극 중에서 1인극을 하지요. 1인극이란 배우 1명이 무대에 혼자 올라 공연하는 것을 말해요. 작은 도서관이나 학교, 공원을 무대 삼아 관객들을 만나고 있지요. 언젠가 어린이 친구들이 '아침'의 1인 연극을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2017년 11월, '아침'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에코 아틀리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친구들을 만났죠. 에코 아틀리에에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지구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들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데, 쉽게 버려지는 재활용품들이 새로운 친구들로 태어나는 곳! 이곳에서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면서 지구와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즐거웠어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 여러분을 만나 신나게 많이 웃었던 '아침'이었습니다.

아랫집 화가 이윤기

저는 본래 화가지만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창작 활동을 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창작물들은 리서치를 기반으로 일상적 경험 속에서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찾으며, 세상의 모든 대상과 대화하고 작가적 영감을 얻고 난 후 공간 속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 예술 작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1999년 미술계에 등단했고 '숲의 끝에 멈추다', '화가의 방', '그대로 멈춰라', '생명의 그물코', '목리에서 마주친 얼굴', '일상', '소를 닮은 나', '도전하는 사람들' 등 8번의 개인전과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표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그림시 등에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기창작센터 기획레지던시와 봄날예술인협동조합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 아틀리에에서 친구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참으로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신나게 노는 배우 이기봉

어린이는 놀아야 합니다. 신나고 즐겁게 놀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는 법을 잘 모릅니다. 노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으니까요. 놀지 못하게 하는 규칙도 무수히 많지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관람규칙을 지키며 일방적 소통을 경험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움을 포기한 채 마음 놓고 놀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이는 자기를 해방시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과 행동을 마음껏 표현하고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성취감을 얻는 것은 올바른 놀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놀이는 모든 곳에 존재해요. 마음만 먹으면 일상과는 다른 환상, 신비로움, 경외심, 자유, 해방감을 느끼면서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놀이는 또 고유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통해 잘 놀고, 잘 노는 행위를 통해 형식이 만들어지고 예술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에코 아틀리에에서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움직이고 표현하며 개인의 창의성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예쁜 세상을 꿈꾸는 신연호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린이들이 즐겁게 읽고 생각해 볼만한 글을 써야 할 텐데, 음 고민이군.’
제 머리 한가운대를 차지하고 있는 생각들이예요. 아!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어린이책을 쓰고 있는 신연호입니다. ‘에디슨의 미디어 교실’, ‘스토의 인권교실’, ‘여우가 될래요’와 같은 책을 썼어요. 앞으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제 책을 만나면 반가워 해 주길 바라요.
작은 바람이 있어요. 이 작은 책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예술은 참 쉽고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들이 예술의 씨앗이 된다는 것도요. 어린이는 누구나 훌륭한 예술가랍니다.

에코 아틀리에 “ART&PLAY 예술로 놀자!”

총괄 | 양원모(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장)
기획총괄 | 전지영(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장)

참여작가 | 강효정, 이기봉, 이윤기
퍼실리티이터 | 신연호

코디네이터 | 황서윤(경기도어린이박물관 에듀케이터)
운영지원 | 강민지, 김지나, 김해송, 박제현, 유나리, 최미선(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학예팀),
전문국(기획운영팀장), 김수현, 남공진, 설정숙, 유지은, 임미숙, 임재욱,
차영근(경기도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 김소연, 황명준 (인턴)

디자인 | 40,000km

주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퍼낸 날 | 2017.11.25.
퍼낸 곳 |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소 | 170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상갈동)
전화 | 031.270.8638
팩스 | 031.283.5364
홈페이지 | <http://gcm.ggcf.kr>

© 2017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본 자료집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